

여성 고용 동향

I. 경제위기가 여성에게 미친 영향

☞ '09년 여성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2%로 '08년보다 0.8%포인트 하락했음.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40%대로 주저앉기는 2005년 이후 처음임(노동부 보도자료, 2010.3.8).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07년 이후 3년째 하락세임. 여성비경제활동인구도 전년보다 286천명 증가한 10,420천명으로 '62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음. 이는 남성(5,278천명)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임.

☞ 여성실업률(3.0%)은 전년보다 0.4%포인트 뛰었음. 여성실업자도 304천명으로 4만명(15.0%) 늘었음. 여성실업자는 '06년부터 줄어든다 4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섬. '경제적 이유로 할 수 없이 단시간 노동에 종사'한 여성취업자도 405천명으로 전년보다 54천명(15.4%) 증가했음. 이 중 '평소 일자리가 없어서' 단시간 노동을 한 취업자는 전년보다 43천명 늘어난 275천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돌아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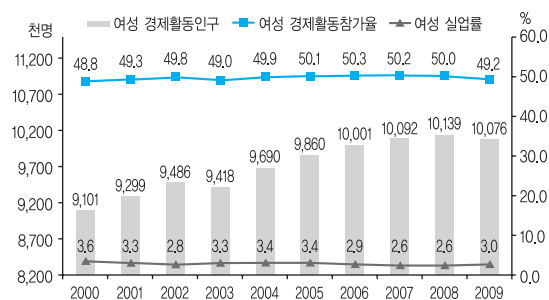
☞ 이와 같은 현상은 금융위기에 따른 고용충격이 여성 등 취약 노동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됨.

II. 여성고용 동향 분석¹⁾

☞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급감

- '09년도 여성경제활동인구는 10,076천명으로 참가율은 49.2%로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 73.1%와 비교됨. 여성실업률은 3.0%, 고용률은 47.7%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05년 50% 수준을 넘어서서 유지되다가 '09년도에 49.2%로 떨어져 50%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됨.

〈그림 1〉 연도별 여성 경제활동인구 추이: 2000~2009년도



〈표 1〉 남녀 경제활동인구: 2009년도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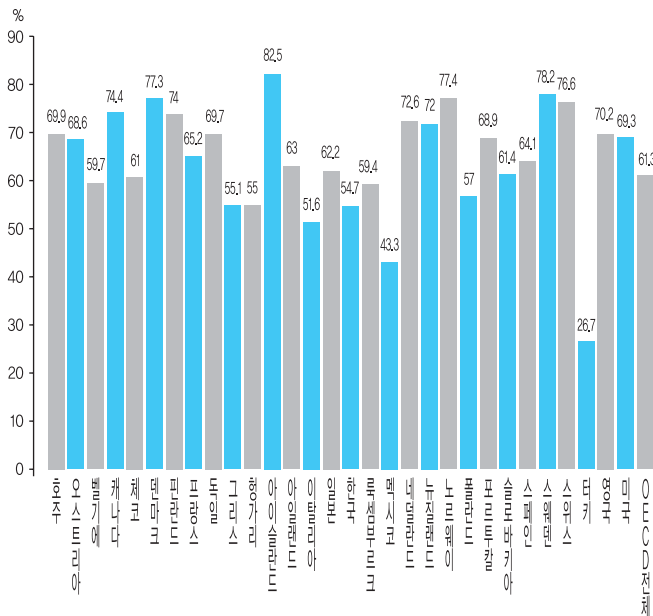
성별	년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여성	2009	10,076	9,772	304	49.2	3.0	47.7
남성	2009	14,319	13,734	584	73.1	4.1	70.1

1) 본 자료는 전기택(2010.4.15), "최근 여성 고용동향 및 정책과제"와 전기택·주재선(2010.3.31)의 "주요 여성고용지표"를 참고하였음.

OECD 회원국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평균 61.3%

- OECD 주요 국가 중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 82.5%이며 다음으로 비롯하여 덴마크 77.3%, 스위스 76.6%, 캐나다 74.4%이며, 회원국 전체 평균은 61.3%임.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50%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 대조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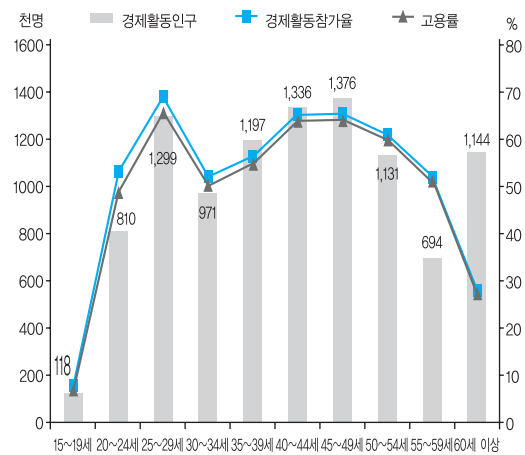
〈그림 2〉 OECD 회원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008년도



35~39세 여성에서 경제활동인구 급감

-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09년 기준으로 15세~64세는 49.2%이며, 15~19세 7.5%, 20~24세 53.0%, 25~29세 69.0%, 30~34세 51.9%, 35~39세 56.3%, 40~44세 65.4%, 45~49세 65.4%, 50~54세 60.9%, 55~59세 52.0%, 60~64세 27.4%임. 25~29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69.0%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30세 이후부터 40세 이전까지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낮아짐. 이는 결혼과 함께 이어지는 육아로 경제활동을 중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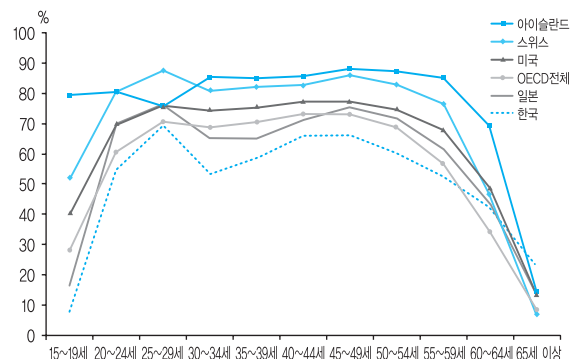
〈그림 3〉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2009년도



OECD 주요 국가의 육아기 여성경제활동참가율: 80%

- OECD 회원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30세 이후 40세 이전까지의 집중적 육아기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스웨덴에서는 30~34세, 35~39세에서도 88.1%, 89.7%이며, 덴마크 85.8%(30~34세), 88.8%(35~39세), 아이슬란드 85.2%(30~34세), 84.9%(35~39세)이며, 독일 76.4%(30~34세), 80.1%(35~39세), 일본 65.1%(30~34세), 64.9%(35~39세), 영국 75.7%(30~34세), 76.7%(35~39세), 미국 74.4%(30~34세), 75.2%(35~39세)로 나타남. 이는 우리나라에서 30세 이후 40세 전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줄어들어 50%대에 머무르는 것과 비교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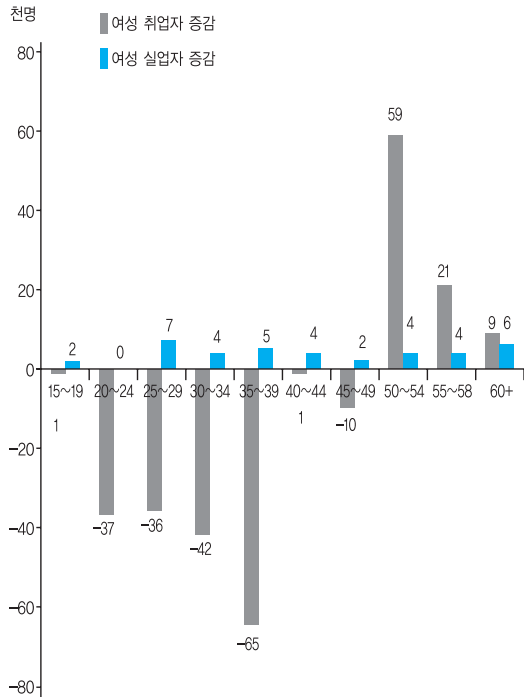
〈그림 4〉 OECD 주요 국가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2008년도



30~34세 여성에서 취업자 수 급감

- 여성취업자는 전년대비 102천명 줄었으며, 전년대비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연령층은 35~39세로 65천명 감소하였으며, 전년대비 30~34세는 42천명 감소, 20~24세는 37천명 감소, 25~29세는 36천명 감소하였음. 여성실업자 수는 전체 연령층에서 증가함. 실업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층은 25~29세로 7천명이 증가함.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에 취약한 계층이 일자리를 가장 많이 잃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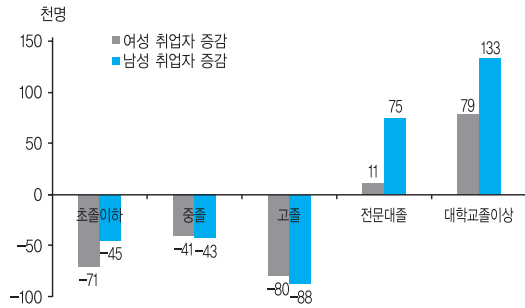
〈그림 5〉 전년대비 연령계층별 여성 취업자 및 실업자 증감: 2009년도



저학력층에서 취업자 감소 폭이 큼

- '09년도 여성취업자는 전년대비 102천명 감소하였으며, 학력별로는 초졸 71천명 감소, 중졸 41천명 감소, 고졸 80천명 감소, 전문대졸 11천명 증가, 대학교졸 이상 79천명 증가임. 남성 취업자도 마찬가지로 초졸, 중졸, 고졸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고, 전문대졸, 대학교졸 이상에서 증가한 전체적으로는 실업률은 증가하고, 고용률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옴.

〈그림 6〉 전년대비 교육정도별 여성 취업자 증감: 2009년도



혼인 상태에 따른 차이

- 혼인상태별 남녀경제활동을 살펴보면, '09년 경제활동참가율은 기혼 여성 49.0%, 기혼 남성 83.2%, 미혼 여성 49.6%, 미혼 남성 50.9%로 나타남. 이는 전년대비 기혼 여성 0.8%포인트 하락한 것이며, 미혼 여성 1.0%포인트 하락한 것임.
- '09년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기혼 여성 36천명 감소, 미혼 여성 67천명 감소하였고 실업자는 늘어난 상황임. 남성의 경우 미혼 남성 취업자 수만 47천명 감소하고, 기혼 남성 취업자 수는 77천명 늘어남.

〈표 2〉 전년대비 혼인상태별 남녀 경제활동 추이:

2009년도

(단위: 천명, %, %p)

구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2008	계	18,701	5,645	18,350	5,226	351	419	65.5	51.1	1.9	7.4	64.3	47.3
	여성	7,644	2,495	7,527	2,347	117	148	49.8	50.6	1.5	5.9	49.1	47.6
	남성	11,058	3,150	10,825	2,879	233	271	83.8	51.4	2.1	8.6	82.0	47.0
2009	계	18,827	5,568	18,394	5,112	433	456	64.5	50.3	2.3	8.2	63.4	46.2
	여성	7,635	2,441	7,491	2,280	144	161	49.0	49.6	1.9	6.6	48.1	46.3
	남성	11,191	3,127	10,902	2,832	289	295	83.2	50.9	2.6	9.4	81.1	46.1
전년 대비 증감	계	126	-77	44	-114	82	37	-0.6	-0.8	0.4	0.8	-0.9	-1.1
	여성	-9	-54	-36	-67	27	13	-0.8	-1.0	0.4	0.7	-0.9	-1.3
	남성	133	-23	77	-47	56	24	-0.6	-0.5	0.5	0.8	-1.0	-0.9

☞ 남녀별 직업 분포 변화

- 남녀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에서 특별한 사항은 사무 종사자의 경우 여성취업자에서는 줄어든 반면 남성 취업자에게서는 109천명이 늘어나 성별간 서로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임 여성취업자 분포에서는 '09년도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수가 전년대비 68천명 늘었음. 단순노무 종사자 수는 남성, 여성취업자 수 모두에서 늘어남(남녀 각각 55천명, 93천명).

〈표 3〉 남녀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2008, 2009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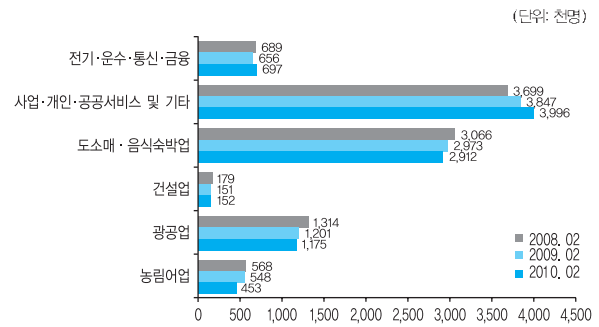
구분				전년대비증감 (2009-2008)	
				증감규모	증감비율
여성	계	9,874	9,772	-102	-1.0
	관리자	52	47	-5	-9.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901	1,969	68	3.6
	사무 종사자	1,684	1,679	-5	-0.3
	서비스 종사자	1,792	1,670	-122	-6.8
	판매 종사자	1,533	1,519	-14	-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91	639	-52	-7.5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357	319	-38	-10.6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29	301	-28	-8.5
	단순노무 종사자	1,535	1,628	93	6.1
	계	13,703	13,734	31	0.2
남성	관리자	497	499	2	0.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81	2,457	-24	-1.0
	사무 종사자	1,802	1,911	109	6.0
	서비스 종사자	862	848	-14	-1.6
	판매 종사자	1,475	1,470	-5	-0.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878	885	7	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975	1,866	-109	-5.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263	2,274	11	0.5
	단순노무 종사자	1,470	1,525	55	3.7

☞ 여성일자리 증가 업종: 사업서비스·개인서비스·공공서비스 기타

- 여성취업자 업종별 분포는 '10년 2월 기준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 697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에 3,996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 2,912천명, 건설업 152천명, 광공업 1,175천명, 농림

어업 453천명으로 나타남. 전기·운수·통신·금융 업종에서 최근 여성취업자 수는 늘어나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업종에서 여성취업자 수가 늘어남. 도소매·음식·숙박업종 및 광공업, 농림어업에서 여성취업자 수는 최근 줄어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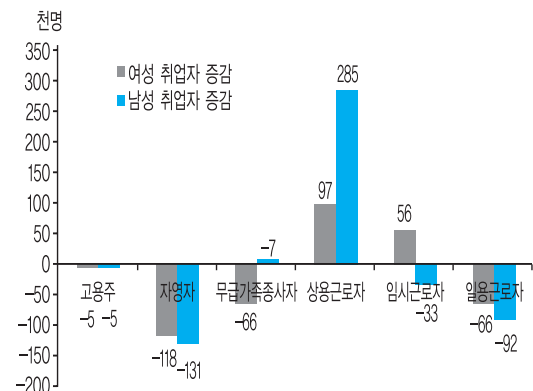
〈그림 7〉 여성 취업자의 업종별 분포: 2008.2~2010.2



☞ 임시근로자 수가 여성은 늘고 남성은 줄어듦

-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09년도말 기준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2,816천명, 여성 임금근로자 6,955천명이며, 남성 비임금근로자 4,236천명, 남성 임금근로자 9,498천명임. '09년도 비임금근로자에서 고용주는 전년대비 남녀 모두 5천명이 감소하였고, 자영자는 남녀 각각 118천명, 131천명이 감소함. 무급가족종사자는 여성이 66천명이 감소, 남성은 7천명이 증가함.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 남녀 모두 증가하였으며, 임시직은 여성은 증가, 남성은 감소임. 일용근로자는 여성이 66천명 감소, 남성은 92천명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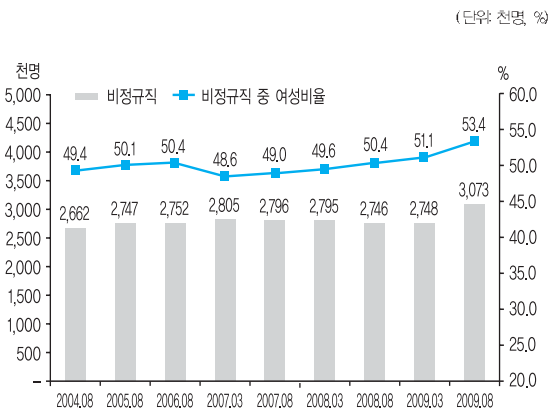
〈그림 8〉 전년대비 남녀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증감: 2009년도



▶ 비정규직 여성의 증가

- 비정규직 중 여성비율은 '07년 이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09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 임금근로자의 44.1%, 남성 임금근로자의 28.2%를 차지하는 데, 전체 비정규직 종사자 중 여성비율은 53.4%임.

〈그림 9〉 여성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규모 및 비정규직 중 여성비율 추이: 2004.8~2009.8



〈표 4〉 남녀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분포: 20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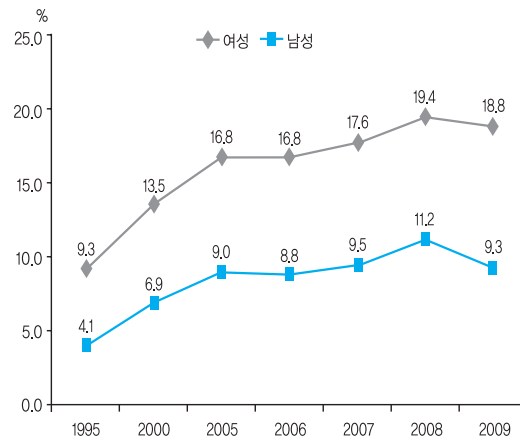
(단위: 천명, %)

구분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중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인원수	6,964	9,515	3,891	6,833	3,073	2,681	44.1	28.2	53.4

▶ 성별 36시간 미만 취업자: 여성 18.8%, 남성 9.3%

- 여성, 남성취업자 수는 '09년도 기준 각각 9,772천명, 13,734천명이며, 이 중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율은 여성에게서 18.8%, 남성에게서 9.3%임.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스스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경우와 경제적인 이유로 할 수 없이 단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취업자와 평소 일자리가 없어서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스스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경우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할 수 없이 단시간 노동에 종사한 여성취업자 수와 평소 일자리가 없어서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늘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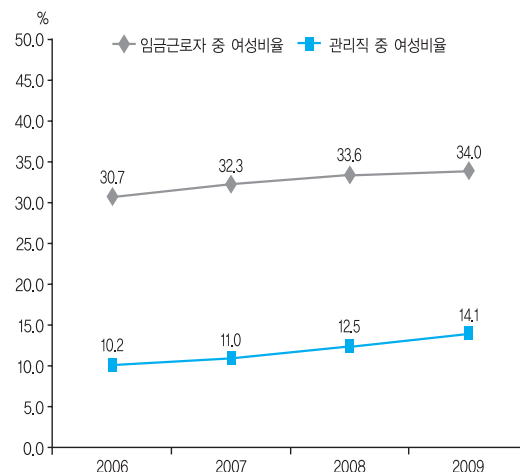
〈그림 10〉 취업자 중 36시간 미만 취업자 남녀 비율 추이: 1995~2009년도



▶ 적극적 조치 고용대상 기업의 관리직 중 여성비율 14.1%

- '06년도 1,000인 이상(노동부 적극적 조치 고용대상 기업체) 기업 대상 조사에서 근로자 중 여성비율은 30.7%를 차지하며, 동일 기준 대상기업에서 관리직 중 여성비율은 10.2%를 차지함. '07년도는 각각에서 32.3%, 11.0%를 차지하며, '08년도 500인 이상 기업(노동부 적극적 조치 고용대상 기업) 대상 근로자 중 여성비율은 33.6%, 관리직 중 여성비율은 12.5%이며, '09년도 전년도와 동일 기준 대상기업에서 근로자 중 여성비율은 34.0%, 관리직 중 여성비율은 14.1%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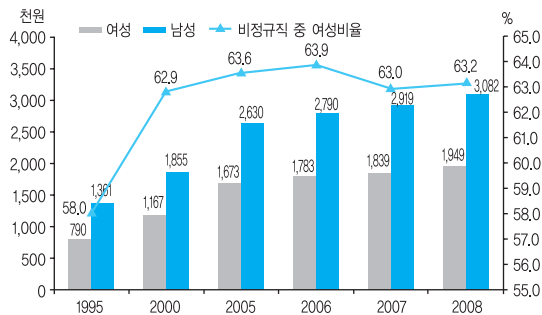
〈그림 11〉 임금근로자 및 관리직 중 여성비율: 2006~2009년도



☞ 여성의 월평균임금은 남성의 63.2%

-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기준 남녀 임금격차는 '08년도 63.2%로 여성이 남성 월평균임금의 63.2%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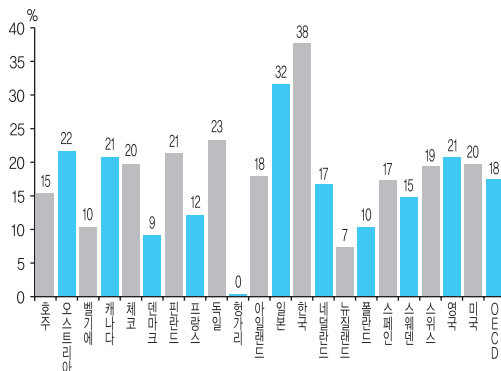
〈그림 12〉 임금격차 성별 추이: 1995~2008년도



☞ OECD 회원국 남녀임금격차: 평균 17.6%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남. 정규직 남녀 평균 임금 격차 통계(2007년도)에서 한국 여성이 남성보다 38% 정도 덜 받는 것으로 분석됨. OECD 회원국 평균 남녀 임금 격차가 17.6%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경우 여성 정규직 근로자가 임금 면에서 적지 않은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국에 이어 남녀임금 격차가 심한 나라는 일본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영국, 미국 순이며, 조사대상국 중 남녀임금 격차가 10%미만인 국가는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로 나타남.

〈그림 13〉 OECD 회원국 성별 임금 격차: 2007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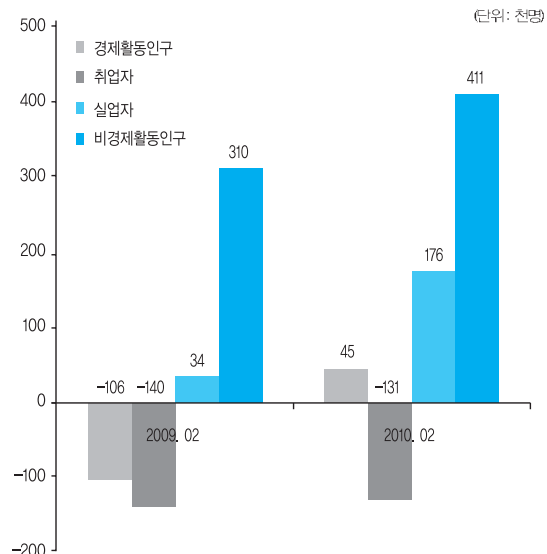


III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 여성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10년 2월 여성비경제활동인구는 '08년 2월에 비해 411천명 증가한 것이며, 같은 기간 여성실업자는 176천명 증가한 반면, 취업자는 131천명 감소하였음. 한편 '09년 2월 여성비경제활동인구와 여성실업자는 '08년 2월에 비해 각각 310천명과 34천명이 증가하였고, 여성취업자는 140천명이 감소하였음

〈그림 14〉 '08년 2월 대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인원



주 1: '08년 2월 대비 증감 현황은 '09년 2월과 '10년 2월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가 '08년 2월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인원으로 표시한 것임.

2: '08년 2월 대비 증감 인원(천명) = '09년('10년)2월 취업자수 - '08년 2월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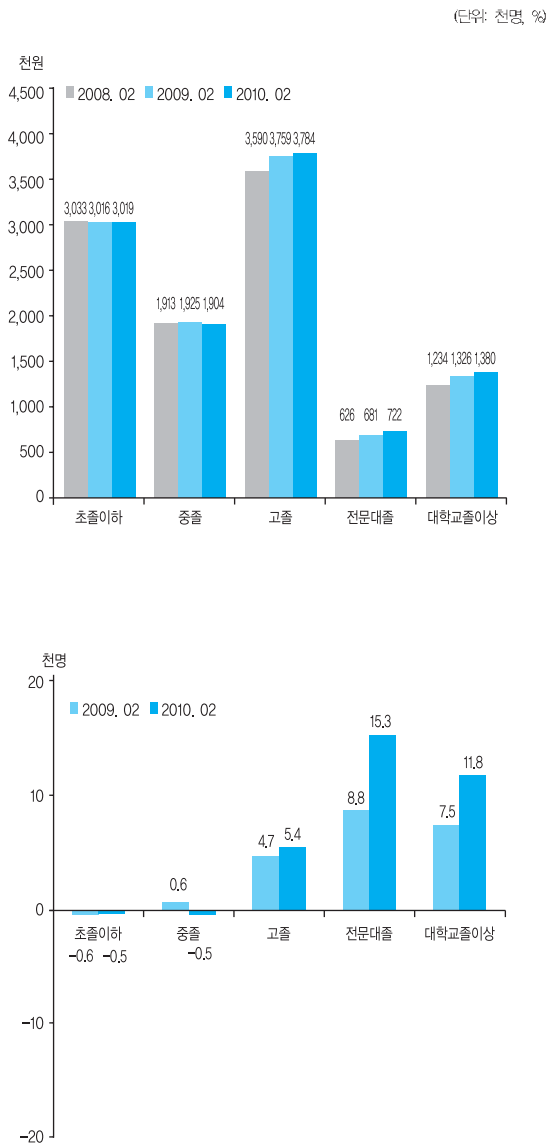
☞ 최근 2년 간 고학력 여성비경제활동인구 증가

- 지난 2년간 전문대학과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음.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으며, '08년 2월 3,590천명이었던 고등학교 졸업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09년 2월과 '10년 2월 각각 3,759천명과 3,784천명으로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전문대학을 졸업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626천명→681천명→722천명으로 증가하였고, 대학교 졸업 이상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도 1,234천명→1,326천명→1,380천명으로 증가하였음

- 특히 '08년 2월 대비 전문대학과 대학교 졸업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다른 여성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고급 여성 인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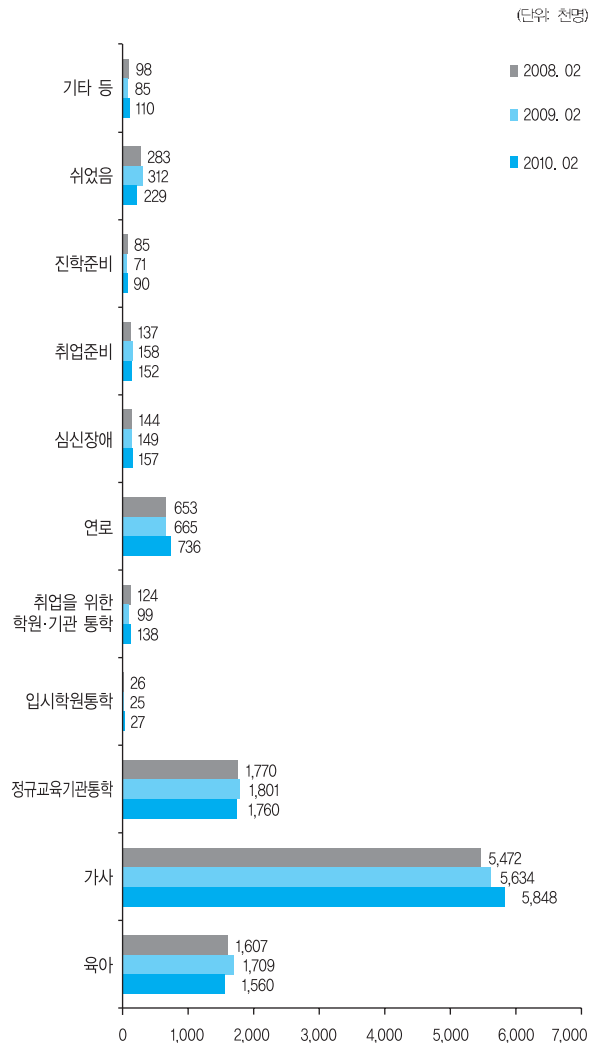
〈그림 15〉 학력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현황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 가사, 육아 활동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은 가사, 정규교육기관 통학, 육아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가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08년 2월 5,472천명에서 '09년 2월과 '10년 2월 각각 5,634천명, 5,848천명으로 증가하였음. 육아를 수행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08년 2월 1,607천명에서 '09년 2월 1,709천명으로 증가하였다가, '10년 2월 1,560천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음.

〈그림 16〉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별 분포



주 : 하단의 그림은 '09년 2월과 '10년 2월의 학력별 비경제활동 인구가 '08년 2월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비율로 표시한 것임

IV. 여성 고용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정부일자리사업에서 재취업 여성 우선 채용

- 최근의 여성 고용 상황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일자리사업의 여성참여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사업에서 재취업 여성을 우선 채용하여, 여성 고용을 개선하도록 함.

☞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의 지속적 확대

- 단시간 일자리는 여성 고용 확대를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저임금과 고용이 불안한 단시간 일자리로는 여성 고용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음.
- 다음과 같이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고학력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하고, 남녀 근로자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고용 안정형 단시간 근로 형태 도입-단시간 일자리와 고용 안정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여성 근로자를 위해 고용 안정형 단시간 근로 형태 도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자녀가 있는 근로자까지 확대
 - 전문직 단시간 근로 모델 개발 및 확산

☞ 일자리 증가 업종 및 직종의 여성 취업 촉진

-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일자리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종과 업종에서의 여성 취업자는 증가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여성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는 업종 및 직종의 여성 취업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의 직업능력을 제고하고 여성의 취업 촉진

☞ 남성의 가사분담 문화 확산

- 우리나라의 일상 문화에서는 일·가정의 양립이 여성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통계청의 '09년 생활시간조사결과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의 남편이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를 위해 쓰는 시간은 평균 37분으로 맞벌이 가구 주부의 3시간 20분에 비해 현격하게 적게 나타남
- 기혼 여성 근로자들이 일·가정을 양립하며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가사참여 시간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정시퇴근 문화를 확산하여, 남성의 가사참여 확대를 촉진하여야 함.